

강진 화산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국비 확보 쾌거

농어촌공 주관...郡, 166억원 투입
저수량 2배 증충...175ha 안정 공급
월남지구 686억원 성과 있는 연타석
쌀귀리 등 지역 특화 영농기반 확충



화산저수지 전경.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려온 공동면 화산지구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나서며 지역 농업 환경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공동면 화산리 일원 농경지의 항구적인 가뭄 피해를 해소할 '화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2026년도 기본조사 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전역 국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166억원이 투입되며,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향후 5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핵심 사업은 화산저수지의 규모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키우고, 용수로 4.1km 및 이설도로 1.8km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화산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48만1천으로, 적정 필요 수량 대비 48만1천500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원이 미치지 못하는 말단부 농경지는 매년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어왔으며, 가뭄 시 균등천 유입수 감소로 양수장 기능마저 정지되는 등 용수 공급 체계가 극히 취약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화산저수지의 총 저수량은 93만2천500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를 통해 기존 101.2ha는 물론 보강 282ha, 신규 46ha를 포함한 총 175.4ha의 넓은 농경지에 사계절 풍부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져, 쌀귀리 등 지역 특화 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비 확보는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월남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결실을 잇는 쾌거로 평가받는다.

월남지구는 국비 686억원을 투입해 성전면 월남제의 저수량을 기존 222만6천에서 588만6천으로 2배 이상 증충할 매머드급 국책 사업으로, 오는 2027년 용수로 개설이 모두 마무리되면 성

전·작전·병면면 일원 약 900ha 농경지의 가뭄이 완벽히 해소된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농업 기반 확충 사업을 연이어 파낸 배경에는 국회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사업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강진군의 적극적인 발품 행정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월남지구에 이어 화산지구까지 연속으로 굵직한 국비 사업을 이뤄낸 것은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얻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 진행될 기본조사와 실시설계 등 모든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겨 강진 농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민주당 목포 경선 내용에 민심 이반 가속

유력 후보 사퇴·깜깜이 여론조사 논란
고소·고발 난무 속 정쟁 경쟁 실종 지적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목포 지역 경선이 '깜깜이'와 '불공정' 논란으로 얼룩지며 심각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정책 대결 대신 폭로전과 관리당원 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지역 민심마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목포시장 경선 과정에서 일부 유력 후보가 석연치 않은 갑질 사유로 중도 사퇴하면서 불공정 시비가 거세게

일었다. 이후 선거권은 고소·고발과 금품 수수설, 여론조사 왜곡 의혹 등 진흙탕 네거티브 공방으로 번지며 분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광역·기초의원 경선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른바 '깜깜이' 비공개 여론조사가 반복되며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재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낙점 공천' 의혹과 조직 개입설까지 불거지는 실정으로, 이는 명부 비공개 등 당원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와 모호한 가·감점 룰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경선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실망한 관리당원

과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본선에서 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역선택' 기류마저 뚜렷하게 감지된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허술한 공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시민들의 눈길은 오히려 참신한 인물 중심의 시외회 선거로 향하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 간판의 대결을 넘어 누가 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엄중한 심판대가 될 것"이라며 "결국 유권자들은 당적보다는 인물과 가치를 최우선 기준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김산 무안군수 예비후보 '포용형 행보' 주목

나광군·최옥수·류춘오 정책 반영

본격적인 무안군수 선거전이 막을 올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산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경쟁자들의 핵심 공약을 적극 수용하는 '포용형 정책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후보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정책 중심의 통합 선거전을 치르기 위해 나광군, 최옥수, 류춘오 등 경선 후보들이 제시했던 우수 정책들을 자신의 공약으로 흡수해 실천할 방침이다.

주요 검토 대상에는 나광군 후보의 '초·중·고 아침 간식 지원'과 '신도시 스마트 교통체계', 최옥수 후보의 'RE100 국가산단 유치' 및 '에너지

수익의 공유 모델', 류춘오 후보의 '스마트 농업 확대' 등 지역 미래 먹거리와 생활 밀착형 공약이 두루 포함됐다.

이 같은 행보에 지역사회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소모적인 네거티브 공방에서 벗어나 후보의 훌륭한 정책을 과감히 수용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선거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산 예비후보는 "경쟁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과 다양한 제안들은 모두 무안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책은 경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수단인 만큼, 좋은 정책이라면 누구의 것이든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나주시, 대호2·송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층수 제한·건축 규제 완화
토지 이용 효율·상권 활력

나주시가 대호2지구와 송월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며, 장기간 묶여있던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한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온 대호2지구와 송월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최근 마무리하고 최종 고시했다.

이번 재정비는 인구 구조와 상권 변화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계획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변경 사항은 층수 제한 완화와 용도 기준의 현실화로, 대호2지구는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해 2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송월지구는 준주거용지 6층, 상업용지 9층까지 층수 제한을 풀어 개발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이와 함께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토지 분할과 합병 기준도 정비해 전반적인 계획 체계를 현대화했으며, 시는 이번 조치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송월지구 위상선진화 토지이용계획도. (나주시 제공)

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운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재정비는 장기간 유지된 계획을 현재 도시 흐름에 맞게 조정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함평군, 농가 '친환경 해충 포획기' 보급

함평군이 기후 변화로 급증하는 돌발 병해충 피해를 막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관내 농가에 친환경 방제 장비를 전폭 지원한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친환경 및 과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학 방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병해충 방제 포획기' 보급을 완료했다.

이번에 보급된 친환경 포획기는 특정 파장의 빛과 해충 유인제를 활용해 해충을 물리적으로 포획하는 장비로, 농약 살포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농가의 경영비와 노동력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이끌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포획기 보급과 함께 현장을 찾아 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법, 주요 병해충 예찰 요령, 친환경 농자재 활용법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병행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문정모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환경 방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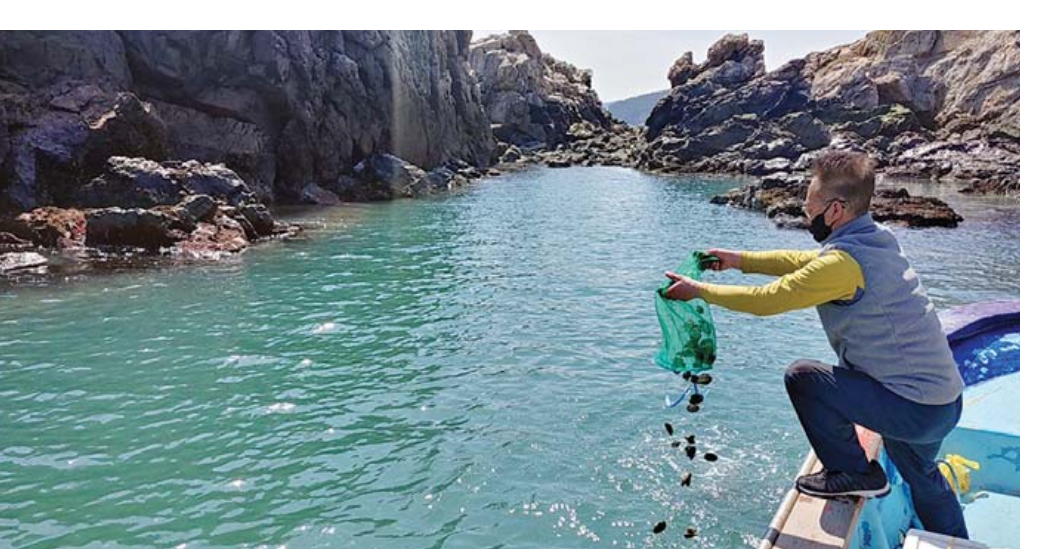
신안 수산자원 회복 본격화 '전복 종자' 17만마리 방류

신안군이 기후변화와 남획으로 고갈돼 가는 연안 어장의 자원 회복을 위해 수산 종자 방류에 본격 나섰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흑산면 다물도 등 5개 지선 연안 해역에 각각 4cm 이상의 우량 전복 종자 17만마리를 대대적으로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된 전복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건강한 종자로 생육에 최적화된 수심 5-50m 암초 해역에 해녀 등 해당 지역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해 투입했다.

전복은 방류 후 재포획률이 98%에 달하고 이른바 '바다의 보약'으로 불리며 경제성이 높아



어촌계가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다.

군은 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순까지 흑산면 심리 등 5곳에 해삼 18만마리, 증도면 방축지선 등 3곳에 백합 10만마리, 지도읍 선도 지선에 꼬

막뽕마리 10만마리를 순차 방류한다.

이어 5월 중순에는 서식 기반이 조성된 흑산면 도토리 등 6곳에 어린 해삼 57만마리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양홍기 기자



해남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볶음김밥이 최근 미국 '엑스포푸드'에서 베스트 유기농 제품 대상에 선정됐다. 사진은 해남쌀로 만든 냉동김밥과 수출용 쌀 모습. (해남군 제공)

해남쌀 볶음김밥, 美 최대 식품박람회 '대상'

엑스포푸드 유기농 대상
냉동김밥 최적화 수출 호조

해남산 쌀로 만든 유기농 볶음김밥이 미국 최대 식품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K-푸드 돌풍의 새로운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땅끝항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미국 식품 기업 오션스헤일로가 협업해 출시한 '유기농 볶음밥 김밥'이 최근 열린 미국 '엑스포푸드'에서 베스트 유기농 제품 대상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4년 유기농 채소 김밥으로 넥스티(NEXTY) 어워드를 수상한 데 이어 연속 수상의 쾌거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볶음김밥은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볶음밥(Fried-ric)을 김밥 형태로 말아낸 현지화 특화 제품이다.

늘어지기 쉬운 볶음밥의 질감을 일정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 조리과 배합, 성형 등 전 과정에 새로운 공정을 도입, 냉동식품의 한계를 극복하고 트렌디한 건강식으로 현지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냉동과 재가열 과정을 거친 후에도 본래의 찰진 식감과 결속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해남쌀의 우수성이 이번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오션스헤일로를 통한 해남쌀 냉동김밥의 미국 내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쌀을 공급하는 땅끝항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지난해 수출액은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쌀이 대량 생산과 냉동 유통에 최적화된 고품질 쌀임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현지 맞춤형 K-푸드 수출을 통해 해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